

現代大學과 學生福祉

鄭 遇 湜

(延世大 社會事業學科)

1. 머리말

現代社會의 高等教育을 주관하는 대부분 學校 法人의 설립목적¹⁾은 “社會發展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광범하고 다양한 응용방법을 教授·研究 開發하는 동시에 敎養을 넓히고 人格을 陶冶하며 국가 社會에 貢獻할 수 있는 유능한 指導의 人材 양성에 目的을 둔다”라고 학교 법인의 정관과 학칙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上記의 내용을 요약하면 ‘학술 연마와 인격 도야’가 젊은이들을 위한 大學敎育의 주요 기능이라 하겠다. 이 같은 大學의 機能을 달성하는 데는, 敎育을 주관하는 主體로서의 大學當局과 敎育을 履修하는 客體로서의 學生間의 慾求體系가 相互充足될 때, 그 目的達成이 確證될 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大學生들이 敎育의 目的을 향하여 正진하는 과정에서 諸般要因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능에 어려움이 조성되었을 때,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조직된 學內活動을 大學이 學生들을 위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어비스적 次元에서 大學과 學生福祉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다루어질 내용은 학생복지 개념, 대학의 복지활동, 그리고 학교와 학생복지의 仲裁 및 바

람직한 복지활동과 과업 등이다.

2. 學生福祉의 뜻

넓은 의미에서의 학생복지가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들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취급하는 데 대해, 좁은 의미에서의 학생복지는 보다 제한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학생’, ‘학업의 성취도가 낮은 학생’, ‘정서불안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생’, ‘가치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견해다.

이 같은 의미에서의 학생복지의 견해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보호·예방·회복 등의 증재 기능을 시행하는 施策體系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복지는 학교생활과 건강상태를 만족한 수준에 미칠 수 있게 학생 개인이나 집단 학생을 도와 주기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서어비스와 제도의 조직체제이고, 학생 각자의 여러 능력을 충분히 발휘케 하여 그들의 복지를 사회와의 조화 속에서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적·사회적 제반관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 필자가 全國 各大學의 요람을 검토한 연후에 밝혀진 사항임.

이 같은 목적하에 학생복지가 학생들의 諸般 高叢을 돕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면, 이러한 助力의 역할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산출될 수 있는 기능이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학생복지활동은 어떤 상황 속의 학생과 그가 처해 있는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 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환언하면, 이는 그 상호작용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체로서의 학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하겠다.

3. 각 대학의 學生福祉 活動

각 대학마다 학생복지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공통현상이라 할 수 있다.

① 학생회관—학생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의 중심지로서 대부분의 학생활동이 이 학생회관내에서 조직·기획·운영되고 있다.

② 보건진료소—학생의 질병 예방, 학내 위생 점검 및 지도, 보건 상담을 관장한다.

③ 소비조합—학생들에게 필요로 되는 제반 학업용 도구와 기타 학업과 학교생활에 관계되는 용품을 일반 시중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취급하고 있다.

④ 체육 및 오락(문화·예술)시설—학생들의 체력 신장과 취미 활동의 공간을 제공한다.

⑤ 직업보도—재학생의 부직 알선과 졸업생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학자금 융자—학자금 융자는 정부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구 의욕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이에 필요한 절차를 돕고 있다.

도서관과 기숙사는 좁은 의미의 복지개념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학생 복지시설이라고 지칭할 수 없으나, 이 같은 시설의 미비와 부족 현상은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킬 수 없으며, 변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공간의 기능을 원활히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의 가장 중요한 학생복지 활동으로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학생상담 관계의 생활연구소의 운영이다.

학생상담연구소는 학생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를 상담과 각종 심리조사 및 집단지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조언함으로써 건전한 自我觀을 확립하여 보다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토록 助力해 주며, 자신과 미래 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와 협조의 자세를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상담연구소의 활동 내용으로는 학생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을 돕는 개인상담 활동이 있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성격, 적응, 인간관계, 심리적 갈등, 情緒 문제, 직업 선택, 異性 문제 및 가정 문제 등을 다룬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일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自己自身과 他人을 이해하며, 나아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터득케 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상담 활동이 있다. 그리고 학생 자신의 內在의인 능력과 심리적 속성에 대한 정보—학생 자신의 지능, 적성, 인성, 자아실현, 욕구 진단 등—를 객관적인 각종 심리검사를 통해 제공한다. 이 같은 제반 상담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상담이나 집단지도를 통하여 개인의 사회성을 개발하도록 하고, 진정한 自己이해와 발견을 가능토록 한다.

학생상담연구소에서는 이상과 같은 심리적 조력을 통한 자기 성숙의 함양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심리적 제반 문제에 대한 도움과 이를 위한 전문교수와의 상담 알선도 가능케 조성될 수 있다.

4. 大學과 學生間의 福祉仲裁者

미국의 백악관 학생백서(White House Conference on School)에 의하면, “학교는(초·중·고등교육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학습(지능 면), 사회, 정서 및 도덕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 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반드시 개발하여야 된다. 학생들이 학업에 부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행동규범에서 이탈하는 어려움이 발견될 때는 학교는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이들의 교육을 정상상태에 다시 올려 놓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학습과 생활지도에 대한 균형 있는 학교 생활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같은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이들의 학교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을 학교의 간부요원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활지도 부문의 전문가들은 사회사업학,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앞장서고 있다(구체적인 예로서, 미국 대학의 대부분은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자를 학생처장의 직무에 임명하고 있다).

이 같은 目的達成을 위해 필요로 되는 전문직 종의 대표집단은 '학교사회사업'을 전공한 자들이다. 학교사회사업가²⁾들은 그가 봉사하는 학교의 목적 밑에서 학생들의 認識(知能)面과 情緒面에서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가정·사회와의 仲裁役割을 사회사업의 원칙과 방법의 적용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목적은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 생활과정에 있어 그들의 능력 개발이 되는 무대로서의 역할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교사회사업가들은 다른 학교간부들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그들의 풍부하고 고무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며 학생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계와 그들이 당면한 미래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사회사업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함양시키고 배움의 지속성을 갖게 하며 성장에 따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 주는 데 있다. 이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은 대인관계의 원만성, 정서의 안정감, 학업에의 동기화, 그리고 개성 발달뿐만 아니라, 배우고 생각하며 성장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태도를 발전시켜 주는 데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능력 있고 효율적인 중재기능의 수행자는 반드시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른 변화에 잘 부응할 수 있는 者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仲裁者는 그가 봉사하고 있는 학교·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학교의 특수한 제도 및 학교와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직접적 이해와 관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학생 개개인의 지능,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련 되는 필요와 이의 성취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교의 목적을 도우며, 학교와 지역사회 내의 여러 기관과의 협조를 연결시키며 필요로 되는 사회적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데에도 관심을 둘 수 있다.

대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福祉仲裁者들은 개인으로서의 학생, 집단으로서의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는 데 책임이 있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문제를 발생케 하는 여건들에 대한 해결 의뢰가 직접적으로 교수와 학교 당국이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복지중재자는 대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석·설명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은 특정한 학교, 특정한 학생들, 특정한 지역사회의 속성을 연구한 다음, 학교 행정당국, 교수, 그리고 특수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자문이 연결되어야 한다.

5. 福祉 서어비스와 協助

福祉仲裁者는 자기 학생들의 지능과 사회·경제적 차이에 민감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어떤 학생들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협조와 여러 자원을 필요로 하는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학생들도 있으며, 또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테만과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라나 이들의 보호를 위해 복지중재자와 지역사회 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혼란의 결과로 학업에 직접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격이 과격하고 학교와 사회에 대한 적대성을 지닌 자세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다.

특수한 학생들이나 문제에 대하여 복지중재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될 때,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한 처우 또는 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의 적용방법은 개별지도 사회사업방

2) 本稿에서 '學校社會事業家'와 '福祉仲裁者'는 同意語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법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한 집단적 학생을 다루는 집단지도 사회사업방법일 수도 있다. 仲裁者들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정보, 충고, 제의, 또는 직접적인 지시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들은 학생들의 목적과 가치관을 개발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능력과 관심을 이해하도록 도와 줄 수도 있다.

처우와 치료계획의 초점이 신뢰와 우정을 통한 정서적 뒷받침에 맞추어질 수도 있다. 때로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제반 규칙과 목적을 설명해 주어야 할 경우도 있으며, 학교의 성격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대학의 전반적인 생활에 장애가 되는 긴장의 요인을 제거해 줄 필요와 그들의 인간관계와 감정의 표현이 적절히 규제되고 있는가, 또는 배움에 지장이 되는 수용받기 어려운 행동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가를 확인하여 적절한 재적응의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大學의 福祉仲裁者들은 大學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며 그들 자신과 장래의 목표 인식이 확실치 못한 학생들을 도와 주도록 요청 받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쌍방간에 신뢰와 진실된 반응의 관계가 전제되며,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와 장래의 방향에 대하여 건설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복지중재자들은 그들의 봉사활동의 본질, 목적 및 절차가 학교운영자와 교수들간에 명확히 이해되어 왔는가, 그리고 여러 교육적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에 잘 봉사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의 책임이 있다. 학생부지를 위하여 학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식이 학교운영자들과 교수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는가.

②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문제 있는 학생이나 문제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③ 학교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및 면학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과 기술에 관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④ 의외되어 온 문제, 이루어진 발전 및 취하

여질 다음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교수들과 더불어 행하여지고 있는가.

⑤ 문제 발생의 원인과 학생들의 복지에 바람직하지 아니한 학교규칙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대화가 학교 행정가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⑥ 지역사회와의 여러 기관들과 상호협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가를 돕고 있는가.

⑦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조관계가 이룩되었는가.

⑧ 학생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학교내의 훈련 상황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 學生福祉를 위한 活動과 課業

학생복지에 관계되는 활동과 과업은 다음과 같은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때때로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상의 과제를 처리하지 못하며,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 해결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학생들과 자원체제간에 연결을 설립시킨다. 자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식·비공식적 학교와 사회체제와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원체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이든지,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필요한 자원체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자원체제간에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줄 필요가 있다.

③ 학생들과 학교가 마련할 수 있는 자원체제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양자간의 연결이 형성된 후에도 학교체제가 학생들의 욕구에 무감각하든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자원체제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의 성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를 크게 촉진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문제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부지는 자원체제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을 건설적으로 촉진시키며, 때로는 수정

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도 하여야 한다.

④ 자원체제내의 상호작용 촉진이 요청되어야 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학교자원체제내 하위층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체제내의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그들의 관계를 수정하고 재정립하여야 한다.

⑤ 학생통제적 측면에서 이를 위한 중재역할을 하여야 한다. 학교체제는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체제는 이타적이고 反規制的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보호와 처우를 받게 할 수 있는 역할 행사도 수행하여야 한다. 소수의 미학생들은 열광과 열중, 그리고 가장 높은 원리라는 미명하에 무모한 행동, 자기전념, 독특한 오만에 대한 잠재력이 극도에 달하여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기존질서에 도전하고 변화와 변혁이 없는 사회의 안정성을 가장 혐오한다. 이들의 갈등은 학생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價値와 社會가 受容하라고 강요하는 가치간의 긴장에서 연유된다고 성토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회와 고립시키고 현실의 이해와 타협을 거부한다. 福祉仲裁者들은 이러한 學生들을 위한 바람직한 指導를 社會의 主流를 이루는 價値와 規範의 次元內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입장에서 仲裁機能을 履行해야 한다.

7. 문제점과 전망

現代大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現代社會에 있어 깊은 데립의 한 국면은 학생 자신이 추구하는 價値와 현대사회간의 마찰로 발생하는 갈등, 즉 심리학적으로 인습적인(conventional) 것과 탈인습적인 것과의 갈등 때문에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 스스로 어려움을 조성하는 소수의 理想指向主義者들에 대한 學生福祉問題라 하겠다.

그러나 人間成長의 과정에서 知性發達의 마지

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탈인습적 도덕수준(Post-conventional level of morality)을 지닌 個人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안정성과 문화적 연속성 때문에 인간의 타성, 즉 대부분의 사회적·문화적·제도적·정치적 규범에 대한 무비판적인 승인만을 요구한다면, 生の 한 단계로서의 청년기와 미학생의 활력을 억제하는 경우가 되겠다.

사회적 안정성과 문화적 연속성에 대한 논의에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거대한 불안정성과 심한 불연속성으로 지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랜 과거유형의 안정과 연속성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이미 상실되었다. 오늘날, 거대한 타성이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였던 지난 과거의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습이라는 덩어리는 오래전에 부수어졌다. 유일한 희망은 이러한 관습적 타성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일부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이 예견하듯이 단순히 사회적 구축을 떨쳐버림으로써 자동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인간은 제도적인 변혁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없다. 타성지향주의적인 과거가 안정을 제공해 왔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현상이 항상 당연하며 계속적인 眞理는 아닌 것이다. 만일 새로운 도덕발달 단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더 자율적인 위치로 이끄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 결과는 무비판적인 수용보다는 신중하고 자기 의식적인 충성과 협동에 더 기초를 두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심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조건에 한층 더 좌우되는 것이다. 대학의 젊은 청년들이 지니는, 사회·심리적인 속성의 일환으로서의 갈등, 도전, 변혁, 소외, 비판 등의 특성들은 大學當局만의 복지적인 次元에서 논의될 성질의 주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가정·사회·문화·제도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모든 전문기구와 행정체제가 協同하여 다뤄야 할 문화적 행사이어야 되겠다. *